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9550명 뽑는다

도교육청 전형요강 공고... 남녀 구분없이 내신점수로 선발

2019학년도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36교에서 신입생 9,550명을 선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 정원은 전주 23교 6,244명, 군산 6교 1,566명, 익산

7교 1,740명 등 총 9,550명이다. 응시 자격은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북에 거주하는 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고 전북에 거주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북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지원 방법은 학군 내 모든 학교를 지방 순으로 선택하되 전주는 배정 권역을 선택해 혁신권역은 양현고의 6지망까지, 일반권역은 1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자도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 가능하다. 전형은 남녀 구분 없이 내신점수(석차백분율)로 선발한다. 합격자는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는데, 성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방

한 순으로 추첨 배정한다. 추첨 배정된 학교는 변경할 수 없다.

합격자의 남녀수에 따라 학급당 정원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12월 24~27일이며, 합격자는 2019년 1월 10일, 학교배정은 2019년 1월 18일 각각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고시·공고)/학교교육과-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더욱 힘쓸 것”

전북대 LINC+사업단, 기업분석대회 1위 등 5팀 입상

학생 기업분석능력 향상·전북지역 선도기업도 홍보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전라북도(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 LINC+사업단이 주최하고 (사)팹텍 종합기술원이 주관하는 2018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경진대회에서 1위를 포함하여 참가한 5개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회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전라북도 선도기업을 알리고 기업의 환경분석(3C/FAW), 사업전략, 마케팅 전략, 기술부문 등 분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브랜드 이미지 제고, 제품개발 등) 제안내용을 발표하는 대회다.

총 19개 팀에 4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예심을 통해 9개팀의 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해 자웅을 겨뤘다.

본선에서 전북대 김성준(항공우주공학과)·나범수(전자재료공학과)학생이 테크항공(주)에게 '화재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드론' 개발

을 제안하는 분석내용을 발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전북대 최인혁(전자공학과), 박상철(전자공학부), 김선희(동물생명공학과), 조수영(생명공학과), 임미경(무역학과), 정재은(무역학과), 이우진(행정학과), 김종성(고분자나노공학과), 홍경민(고분자나노공학과), 이주영(행정학과), 윤지영(통계학과) 학생팀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북대 학생들의 기업 분석 능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여한 기업분석 역량 강화교육을 수료한 참가자 중 분석대상기업인 대우전자부품(주) 공채에 3명이 동시에 합격하는 성과도 올렸다.

또 순위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된 채용연계형의 경우, 대우전자부품(3명), 테크항공(1명) 등 총 4명의 참가자가 최종 면접권을 얻었다. 최종 채용결과는 9월중에 나올 예정이다. 고영호 전북대 LINC+사업단장은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2018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경진대회에서 1위를 포함하여 참가한 5개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전북지역에 있는 선도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전북 기업 정보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산업체와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 기

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육성한 우수인재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가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명문 군산여상의 이름을 전국에 알렸다.

명문 '군산여상' 전국에 알렸다

전국상업경진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박용범)가 상업·정보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된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명문 군산여상의 이름을 전국에 알렸다.

11일 군산여상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굿잡(good job)고(고) 미래'를 주제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충남천안 천안산업고와 천안여상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엔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표 선수와 관계자 등 4,4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군산여상에선 취업설계포털플리오 등 8개 경진종목에 학생 18명이 출전해서 '취업설계포털플리오'에서 금메달(문아름,3학년)과

동메달(2학년 문세진)을, 비즈니스 영어에서 은메달(3학년, 강서현)과 동메달(3학년 김민아)을, 전자상거래실무에서 동메달 2개(3학년 김유정, 2학년 양운희)를 따는 등 금 1, 은, 동4개의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5일 시작해 6일 결과가 발표됐으며 7일까지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다.

군산여상 김미경 직업교육부장은 “이번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상급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 겨루기 종합 2위 쾌거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태권도부가 최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1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에서 겨루기 종합 2위에 올랐다.

개인전 수상에 스포츠경호학부 2학년 한봉인 학생이 -58kg 체급에서 1위, 스포츠경호학과(야) 1학년 박경원 학생이 -63kg 체급에서 1위에 올랐고, 스포츠경호학과(야) 1학년 이정민 학생이 -54kg체급, 무도경호학부 3학년 장해은 학생이 -46kg 체급, 스포츠경호학부 김건아 학생이 -46kg 체급에서 각각 3위에 오르며 겨루기 종합 2

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은 11일 오후 14시 총장실에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초대하여 직접 한명 한명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참신되어 세계화된 국제공인 스포츠인 태권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빛내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다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태권도부가 최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1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에서 겨루기 종합 2위에 올랐다.

호원대,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 '우수상' 수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2018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에서 지역사회 내 보건 및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호원대학교 소속 전북보건복지증진센터(센터장 왕중산 물리치료학과 교수)와 사회봉사단은 최근 진행된 2018 희망복지박람회에서 우수 체험부스 운영 우수상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10회째 맞는 이번 희망복지박람회는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와 시민 등 2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지난해에 이어 박람회의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자원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호원대학교 전북보건복지증진센터(센터장 왕중산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군산시민과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참여한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진들에게도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호원대학교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